

수입산과 국산한약재의 식별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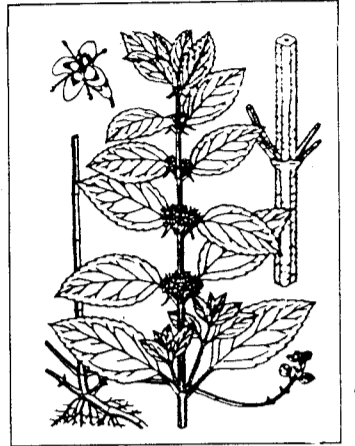
품목구분	항목	국내산	수입산(중국)
꿀기차	색깔	과피는 적색~어두운적색이다.	과피는 밝은적색이다.
	모양	겉면이 주글주글하며 속에는 황색을 띤 백색의 씨가 들어있다.	국산보다 작으며 매끄럽다.
	향·맛	냄새는 거의없고 맛은 약간달고 수렴성이 있다.	단맛이 강하고 끈적거리지 않는다.
길경	색깔	바깥면은 회갈색, 담갈색 또는 백색이다.	회색 및 백색이다.
	모양	두부를 제외한 뿌리의 대부분에는 거친세로주름과 가로로 홈이 있고 또 피복모양의 가로줄이 있다.	뿌리는 잔뿌리가 없고 육이 많다.
	경도	질은 단단하나 꺾어지기 쉽다.	두가 가늘다.
향·맛	향·맛	약간 냄새가 있고 맛은 처음에는 없으나 나중에는 아리고 쓰다.	향은 없고 맛은 밋밋하다.
	색깔	바깥면은 엷은 황갈색~흑갈색 꺾은면은 평탄하고 형성층 부근의 피부는 어두운 황색이나 나머지는 백색이다.	엷은 갈색이며, 속은 약간 황백색을 띤다.
	모양	뿌리의 길이는 약 3~7cm 지름 2~5cm	뿌리가 잘고 잔뿌리가 없다.
향·맛	향·맛	특이한 향기가 있고 맛은 약간 쓰면서 달다.	몸체가 크다 향은 연하고 맛은 달다.
	색깔	회색 또는 어두운회색	겉이 회고등색, 속은 암갈색
	모양	세로주름과 피공이 있고 지의류가 부착되어 있다. 꺾으면 끈기 있는 가는 흰수지의 실이 생긴다.	국내산보다 색이 짙고 어둡다.
표면	표면	울퉁불퉁하고 거칠다.	비교적 매끈하다.
	두께	두껍다	얇다.
	얇은것도 있다. (5년근)		
시호	색깔	바깥면은 엷은 갈색	진한 갈색이다.
	모양	단일 또는 갈라진 뿌리로서 윗부분은 굵으며 지름 5~15cm이고, 아랫부분은 가늘고 길이 3~7cm	검은 색상도 있다. 뿌리가 매끈하게 빠져 있다.
	향·맛	깊은 주름이 있고 꺾어지기 쉽다.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다.	

약초유래를 찾아서

박하 그리스신화「민테」이름에서 유래

박하(Mentha arvensis var. piperascens Malinv.)는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지에서 자생하는 꿀풀과의 속근성 다년생식물로 키가 60~90cm정도 자라는 풀이다. 줄기는 네모꼴이며 가지가 뻗는다. 잎은 길이 6cm 정도이고 마주나며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줄기에는 갈색 또는 담적갈색의 가는 털이 있고 잎의 표면은 진한 녹색이다. 꽃은 줄기 끝부분의 엽액에서 뭉쳐나 산형화서를 이

하고 있었는데 『민테』에게 흠뻑 반한 『하데스』는 가끔 황금마차를 타고 궁궐을 빠져 나와 돌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우리 속담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마침내 왕비 『페르세포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王妃는 질투의 분통이 머리끝까지 올라 『민테』를 죽여 버리려고 그녀의 처소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런 사실도 모르고 『민테』와 사랑을 나누고 있던 『하데스』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민테』를 향기



테(박하)로 하여금 달래보고자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또한薄荷는 그 用도가 광범위하여 의약용으로 건위약, 살균약, 흥분제, 매약원료, 연고제, 진통제 등에 쓰이고 은단, 향료, 청량제, 화장품, 과자, 담배 제조, 合成酒 등에 널리 쓰이나, 향시 소량의 첨가제나 보조제로서만 기능을 다해야 하는 것도 정부인이 아닌 애첩으로서의 민테(박하)의 운명과도 유사한듯 한다.

정유성분이 많아 옛날부터 위의 구풍제로, 진정제로 사용돼 온 박하는, 바람피운 남자가 부인의 질투가 무서워 자기애인을 변신시킨 것이라니

루고 여름과 가을에 보라빛의 꽃이 핀다. 줄기 밑 지하경이 옆으로 뻗어 각 마디에서 뿌리가 발생하여 번식한다. 그리스 신화에 『땅속 죽음의 나라 지옥』를 다스리는 神인 『하데스』는 제우스大神의 딸인 『페르세포네』를 왕비로 맞아 살고 있었다. 왕비 『페르세포네』는 매우 예뻐지만 성질은 매우 급하고 사나웠다. 언제부터인가 『하데스』왕은 왕비 몰래 美貌의 『민테(Menthe)』와 뜨거운 사랑을

는 질이나 불품없는 꽃을 가진 식물로 만들어 버렸다. 그후 사람들은 이풀을 『민테』의 이름을 따서 『Minthe, Mint』 즉 박하(薄荷)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박하는 『지옥의 신』의 연인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박하는 정유성분이 많아 향이 많으며 옛날부터 위의 구풍제로, 또는 진정제로 인류에게 많은 공헌을 하여 왔는데 바람피운 남자가 부인의 질투가 무서워 자기의 애인을 변신시킨 것이라니 부인의 쓰라린 속(胃)을 민

필자약력

성명 : 안상득  
한국 인삼 연초 연구소 선임연구원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 교수  
현, 강원대학교 자원식물개발학과 교수  
저서 : 약용식물 재배, 자원식물학 개론, 백두산 자원식물도감 외 논문 다수

중앙 회원 가입 안내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농촌지도기관, 영농법인, 작목반, 생약분야단체, 학계, 제약 및 식품회사, 우리생약에 관해 관심있는 모든분

**혜택**  
1) 생약재배에 관한 기술지도 2) 생약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3) 입산채취증 발급 4) 생약의 수출입 알선  
5) 생약분야 정보제공 6) 한국생약보(시세표 포함) 제공

**구비서류**  
1) 가입서 양식(본부에 비치)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증명사진 2매  
4) 회비 : • 개인 : 월 3,000원×12개월 = 36,000원  
가입비 10,000원 합계 46,000원  
• 단체 : 월 10,000원×12개월 = 120,000원  
가입비 10,000원 합계 130,000원

가입문의 : 협회사무국 전화(02) 967-8133